

(붙임)

사 진 자 료



1월 큐레이터 추천 유물 <‘토끼와 까마귀가 새겨진 은 주전자(銀鍍金日月瓶)’>

# 안 내 흥 보 물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  
CURATOR'S CHOICE

2023  
JANUARY



### 토끼와 까마귀가 새겨진 은 주전자 銀鍍金日月甌

은도금일월병은 왕실의 연향에 사용된 은제주전자이다. 중앙의 문양이 있는 부분과 꼭지 등 일부는 금도금으로 되어 있다. 중심이 되는 문양은 태양을 상징하는 세발까마귀와 달을 상징하는 방아 찧는 토끼다. 무늬에는 복이 들어옴을 상징하는 박쥐문양을 새겼다. 진찬의궤, 진연의궤 등의 기록에 동일한 기물의 그림이 남아 있어 주로 경사스런 연향에서 주인공에게 술을 따를 때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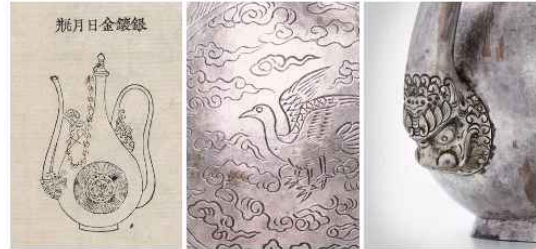
1F 대한제국실

### 토끼와 까마귀가 새겨진 은 주전자 銀鍍金日月甌

Silver Ewer with Incised Rabbit and Crow Designs 높이 : 29.5cm, 바닥지름 : 9.5cm | 은제 19세기

은도금일월병은 궁중 연향이나 제례시 술이나 물을 담아 따르는 용도로 쓰인 주전자이다. 전체적으로는 은으로 만들어졌지만 문양이 있는 부분과 뚜껑 일부는 금도금으로 되어 있다. 바닥에는 십살+호(卐)이라고 적힌 유각문(魚角文)이 있고, 몸체 앞 뒤 중앙에는 세발까마귀 문양과 방아 찧는 토끼가 윤각으로 새겨져 있다. 뚜껑의 꼭지는 연꽃봉오리형태를 띠고 표면에는 복이 들어옴을 상징하는 박쥐문양을 새겼다. 토끼는 예로부터 다산과 지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서왕모와 열한 고대 설화에 등장하며 불사약을 만들기 위해 방아를 찧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런 비담에 토끼가 달을 상징하게 된 것이다. 이 유물은 고종대의 기록물인 진찬의궤, 진연의궤 등에 동일한 모습의 기물이 묘사되어 있어 왕실 연향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 1층 대한제국실에서 만날 수 있다.

This ewer was used at royal banquets. It is made of silver overall, but parts including the design areas on the center of the body and the knob of the lid have been gilded. The main decorative motifs are a three-legged crow that symbolizes the sun and a rabbit pounding something with a mortar and pestle, representing the moon. The lid is incised with designs of bats to invoke the inflow of good fortune. Illustrations of an identical vessel are featured in the royal protocol records for banquets, suggesting that this ewer was used for serving alcohol to a celebrant on festive occasions.



해당 유물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gogungmuseum](http://www.youtube.com/gogungmuseum)



1월 큐레이터 추천 유물 홍보물